

대한양계협회소식



제 18대 회장 취임식 성황리에 개최



2월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당선된 이준동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신관람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관련기관, 단체장 및 임원을 비롯한 시군지부회원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관련기사 80페이지).

기자간담회 이준동 회장 취임 인터뷰

본회에서는 이준동 회장의 취임과 관련,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선 이후 이 회장은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지회와 지부행사 참여의 공식활동을 시작으로 최근 침체된 양



계산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선거당시 공약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위원단 및 정책개발위원단' 구성을 통해 양계협회 회장으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여 양계인의 위상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양계분야 정책 제안 쿼터제 등 8개 항목 제출

본회는 정부에서 신정부출범 이후 양계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렴하여 반영키로 함에 따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8개 항목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육용원종계 쿼터제 의무도입 시행 및 계열화물량 축소, 배합사료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 양계 의무자조금 추진, 공정한 계란가

격 형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생적인 삼계탕용 닭 생산 체계 구축, 국내 양계용 백신 생산기술의 육성지원, 계분 자원화사업 지원,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사전 협의체 구축 등이다(관련내용 본문 104쪽).

**(사)소비자시민모임
강광파 이사 본회 방문**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욱)의 강광파 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은 양계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일 본회를 방문했다. 최근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는 HACCP, 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 조건을 갖춘 농장이 많아지면서 지금보다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백색육을 선호하는 외국인과 같이 국내에서도 건강식품, 완전식품인 닭고기와 계란을 널리 홍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검정위원회
육용 및 산란검정계 성적 검토**

2월 29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2008 제1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개최됐다. 성적검토



는 제 80회 육용검정계 최종성적과 제 41회 산란검정계 중간성적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협회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후 기록 분석한 항목별 성적 및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서옥석 위원으로 하여금 정밀 분석토록 하였다. 축산과학원에 의뢰한 검정소에 대한 평가용역 사업은 축산과학원 사정상 3개월 연장, 추진기로 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천강균 위원 선출**



지난 3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가 개최되었다. '08년 9월까지 생산잠재력은 23,205천수로 전년동기간 대비 9.6%증가될 것이라 전망했다. 제 18대 채란분과위원 선출과 관련해 천강균 위원이 선출되었고, 이덕선 수도권 난간조사위원이 퇴임함에

따라 전 채란분과위원장인 김선웅 위원이 선출되었다. '08년도 산란계자조금 사업계획(안) 보고와 함께 천강군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대군업자들의 납부를 독려해 나아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란업에 대한 주요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최성갑 위원 선출



종계부화분과위원회가 지난 12일 평택소재 가보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분과위원에 최성갑 도원농장 대표를 선출했으며, 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최성갑 신임 분과위원장은 최근 업계에 병아리 시장이 사라져 계열에 의존도가 높아지며 이같은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사라진 병아리 유통 시장을 창출하는데 임기동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분과회에서는 백세미 건과 관련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백세미를 정통성 있는 품종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육삼' 혹은 축산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육계분과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홍재 위원 선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육계분과 임원선출건과 관련 이홍재 위원이 선출되었다.

이홍재 위원장은 당진육계지부장과 육계의무자조금 의장을 역임하면서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앞으로 육계분과 위원장으로서 회원들의 화합을 통해 해결해야할 난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밝혔다.

신입직원 채용 홍보팀에 이경헌 씨

본회는 지난달 18일 협회를 이끌어갈 신입 직원으로 이경헌 씨를 채용했다. 이경헌 씨는 올해 초 강원대학교 동물식품응용과학과를 졸업했고, 앞으로 본회 홍보팀에서 월간양계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 이경헌 씨

☆ 지회 · 지부소식 ☆

**전남도지회
정준규 신임 지회장 선출**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정준규)는 지난 14일 나주 축협 영산포지소 회의실에서 200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 보고와 2008년도 추진사업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임 지회장에 정준규 사장(알샘농장)이 선출됐고, 부지회장에 김복남 사장(알찬농장), 정종식 사장(청솔농장)이 연임되었다. 정준규 신임 지회장은 앞으로 지역 회원들의 힘을 모아 양계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지 회 장 : 정준규
부지부장 : 김복남, 정종식
감 사 : 김용팔, 김희식

**충북도지회
신임 도지회장에 박내면 이사 선출**

충북도지회(지회장 이준동)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충북 청원 소재 '청풍명계'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3년동안 지회를 이끌어온 이준



▲ 정준규 지회장

동 지회장이 양계협회 회장이 되면서 신임 지회장에 대한 선출이 있었다.

신임 지회장

에는 박내면 이사(사진우측)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3년간 지회를 이끌게 되었다. 선출된 박내면 지회장은 회원들의 단결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날 충북도지회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지용현 도지방 수의사, 박상영 보은지방농업 주사, 박천조 음성지방농업 주사, 주우경 괴산지방농업수의 주사가 각각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지 회 장 : 박내면
부지부장 : 한길현, 김원상
감 사 : 김순영
사무국장 : 원용균

**대구경북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김점훈)는 회의실에서 지난 2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007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 보고와 2008년도 추진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북도지회내에 군위문경지부 설립(건)에 대해 승인하면서 앞으로 회원 단합과 도지회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안산란계지부 현판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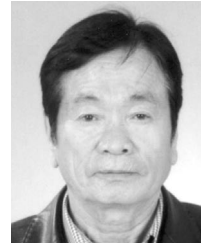
천안산란계지부(지부장 유진)는 지난달 7일 천안시 풍세면에 지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본회 이준동 회장과 각계인사 및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현판식은 그동안 천안시 원성동 대전충남양계농협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지부로서의 활동영역을 높이게 되었다. 유진 지부장은 산란계 업계에서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이 없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어느 시·도지부 보다 뒤지지 않는 제1의 지부를 만들 것이라 다짐했다. 천안산란계지부는 사료배송 사업, 난좌사업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본문 78페이지)

부여육계지부 지부장 선출

부여육계지부(지부장 김신호)는 송태희 전 지부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김신호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김신호 지부장은 ‘지부에서 친환경 축산 등 농가들이 필요로 하며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양계발전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을 밝혔다.



▲ 김신호 지부장

- 지 부 장 : 김신호
- 부지부장 : 박종성, 방진우
- 총 무 : 이지범
- 감 사 : 강공식, 어성원

구미육계지부 정기총회 개최



구미육계지부(지부장 김국록)는 구미 농업기술 센터에서 지난 3월 3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유진 구미시장, 인춘구 시의원, 김인중 선산출장소장을 비롯해 관련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산 보고와 2008년도 추진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국록 지부장은 사료값 및 유류대 인상, 사육수수 증가 등 난제가 상재해 있지만, 해결과제를 삼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활동할 것을 밝혔다.